

# 빈틈 메우고, '최적 조합' 찾는다...세밀함이 관건

## KIA, 시범경기서 드러난 '균형과 과제'

### 김호령의 재발견...장타 억제 '긍정'·불넷 관리 '과제'로 '마지막 퍼즐' 김도영 합류...전력 '↑' 시너지 효과 기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정규시즌 개막을 앞두고 시범경기에서 전력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시범 경기는 개막 초반 판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간 점검 성격을 띤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전반적으로 큰 변동 없이 보완 지점도 함께 드러났다.

17일 기준 KIA는 시범경기 6경기에서 2승 3패 1무로 공동 6위에 자리했다. KBO 데이터에 따르면 이 기간 KIA는 투타 모두에서 뚜렷한 강점 없이 평균 수준을 기록했다.

타선은 일정한 경기력을 나타냈다. 팀 타율 0.258로 리그 중위권에 위치했고, 타점(공동 5위)도 30점으로 크게 치우치지 않았다.

경기마다 고르게 안타를 생산하며 기본적인 공격 전개는 이뤄졌다는 평가다. 다만 장타나 홈루로 단숨에 경기를 뒤집는 장면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중심 타선에서의 결정력과 연결 완성도는 정규시즌을 앞두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간판 타자’ 김도영이 WBC 출전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타선의 무게감이 떨어진 점은 감안해야 한다.

마운드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팀 평균자책점(ERA)은 4.50으로 리그 5위에 자리하며, 대체로 무난한 투구를 이어가고 있다. 피안타(48개)와 피홈런(3개)이 리그 세 번째로 적고, 삼진 능력(43개)도 준수한 수준을 보였다. 투수들이 장타를 최소화하며 버티낸 점은 긍정적이다. 반면 불넷 27개로 주자를 내보내는 장면이 적지 않았던 점은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다. 경기 운영의 세밀함은 보완 과제로 남았다.

공수에서 가장 뼈아픈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는 단연 김호령이다. 그는 시범경기 6경기에서 5할 타율을 기록하며, 리그 전체 공동 1위에 올라 있다. 수비에서도 빠른 발과 넓은 커버 범위를 바탕으로 올 시즌에도 외야 중심축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백업 자원인 3루수 박민 역시 4할 대의 타율로 공격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벤치의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

새 외국인 자원들도 팀 전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카스트로는 타선 보강 카드로서 팀 내 타점 부



시범 경기에서 기대 이상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박민(왼쪽부터), 이의리, 김호령



(KIA 타이거즈 제공)

문 공동 1위에 이름을 올리며 찬스에서의 결정력을 뽐냈다. 그러나 아직 리그 평균 타율에 미치지 못해 방망이 예열이 더 필요한 모습이다. 아시아쿼터로 합류한 데일은 수비에서 제 몫을 해내며 내야 조직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선발전에서는 이의리가 무실점 투구로 기대감을 높였고, 올리고 탈삼진 능력을 앞세워 점차 제 궤도에 접근하고 있다. 불펜에서는 김범수·김기훈·김시훈·홍건희 등이 무실점으로 흔들림 없는 투구를 보였고, 정해영도 깔끔한 마무리로

릿문을 지켰다. 일부 자원들의 기복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정비 과정에 가깝다.

시범경기 초반 롯데와 두산이 투타에서 두드러진 전력을 선보이고 있다. 리그 전반이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흐름 속에서 팀별 편차는 뚜렷하다. 일부 팀은 두 자릿수 홈런으로 장타력을 앞세웠고, 마운드에서는 평균자책점 격차가 크게 벌어지며 불균형한 양상을 엿보였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KIA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며 전력을 다듬어

가는 단계에 있다. 특히 김도영이 19일 한화전에서 복귀 예정인 만큼 팀 분위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시범경기는 결과보다 준비 과정이 중요한 시기다. KIA 역시 기본 틀을 지킨 채 타선의 결정력과 마운드의 제구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남은 기간 얼마나 세밀하게 다듬느냐가 정규 시즌 초반 KIA 전력의 방향성을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주홍철 기자

## 안세영 떠나고 6년...“다시 정상에 서다”

광주체고가 2026 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 회장기 전국학생선수권대회 여고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에서의 우승은 2020년 여고부 복식에서의 안세영-유아연 금메달 이후 6년만이다.

광주체고는 18일 경남 밀양시배드민턴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여고부 단체전 결승에서 성지여고를 세트 스코어 3-1(2-0 0-2 2-0 2-0)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첫 번째 단식에 나선 이윤서(1년)가 박민지를 상대로 2-0(21-18 21-9)으로 승리하며 기선을 제압했다. 이어진 단식에서 김민아(3년)가 김보혜에 0-2(14-21 10-21)로 패했지만 이어진 복식 2경기를 모두 따냈다.

김나연(3년)-이예은(3년)이 2-0(21-18 21-3)으로, 이윤서-여서영(2년)이 2-0(21-16 21-2)으로 완승을 거두며 우승기를 품에 안았다.

광주체고는 단체전 첫 경기에서 청송여고를 3-0으로 꺾었고 8강에서 김천여고에 3-1, 준결승에서 창덕여고를 3-2로 제치고 결승에 올랐다.

광주체고 배드민턴팀은 김나연, 권혜원, 김민아, 이예은(이상 3년), 여서영, 하의정, 정아름, 박유미(이상 2년), 이윤서, 김민, 오연정(이상 1년) 등 11명이 호흡을 맞추고 있다.

### 광주체고, 중고배드민턴연맹 회장기 학생선수권대회 단체전 우승



2026 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 회장기 전국학생선수권대회 여고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광주체고 선수단이 우승기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체고 제공>

중등부에서 학년부 우승을 경험하고 전국대회 4강권에 들었던 이윤서가 고등부로 진학, 지난 동계훈련을 거치며 기량이 늘었고, 복식 선수인 여서영도 이윤서와 호흡을 맞추면서 광주체고 전력이 강화됐다.

김명자 광주체고 배드민턴 감독은 “4강권을

예상했는데 고비였던 준결승 창덕여고전을 넘어서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단체전이 끝나고 선수들은 바로 개인전에 돌입했다. 대회 마지막날까지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그동안 노력한 성과를 얻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 KIA, 올 시즌 일요일 홈경기 '셔드 유니폼' 입는다

### 타이거즈 왕조 부활 위한 다짐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올 시즌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셔드 유니폼'(Third Uniform)을 도입해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다.

선수단은 올 시즌부터 일요일 홈경기마다 셔드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선다. 셔드 유니폼은 타이거즈 왕조의 상징인 유니폼을 재해석해 제작했다. (사진)

디자인 측면에서는 강렬한 레드 상의와 블랙 하의의 조합으로 타이거즈 특유의 강인함과 헤리티지를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유니폼 측면에는 승리의 상징인 'V 패턴'을 레드와 블랙 컬러로 조합해 포인트를 줬다. 또한, 워드마크와 등번호에 흰색 테두리를 적용해 시인성을 높였으며, 소매 끝단과 넥 라인에는 밴드 원단을 사용해 완성도를 더했다.

선수단은 광주 홈 개막 3연전의 마지막 날인 4월5일 일요일 경기에 셔드 유니폼을 처음 착용한다.

한편 이번 출시한 셔드 유니폼은 온·오프라



인 팀스토어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온라인 판매는 오는 24일, 오프라인 판매는 4월3일부터 시작한다. /주홍철 기자

## 2부 우승으로 부활 알린 이정은 LPGA 투어 파운더스컵 정조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포트넷 파운더스컵(총상금 300만달러)이 19일부터 나흘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의 사론하이츠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파72·6천542야드)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김효주와 김세영을 비롯해 최혜진, 이소미, 김아람, 임진희, 유혜란, 양희영, 전인자, 이정은(1988년생) 등 한국 선수 21명이 출전한다.

이 가운데 최근 1996년생 이정은의 상승세에 팬들의 시선이 쏠린다.

이정은은 지난 16일 끝난 LPGA 엡슨 투어 10A 골프 클래식에서 우승했다. 2부 투어이긴 하지만 이정은으로서는 2019년 6월 메이저 대회 US여자오픈 이후 6년 9개월 만에 미국 무대에서 따낸 우승컵이다.

또 이정은은 이번 파운더스컵은 예선을 거쳐 출전권을 따내기도 했다.



LPGA 엡슨 투어 우승 이정은 <엡슨투어 인터넛 홈페이지>

17일 대회 장소에서 열린 18홀 예선에서 이정은은 4언더파 68타를 쳐 2위로 예선 상위 2명에게 주는 이번 대회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이정은은 엡슨 투어 포인트 500점으로 공동 1위를 달리고 있어 엡슨 투어 포인트 상위 선수들에게 주는 다음 시즌 LPGA 정규 투어 출전권 획득 가능성도 부풀렸다. /연합뉴스

## 전남체고 복싱, 여고부 단체전 우승·남고부 준우승

###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종별대회

전남체고 복싱부가 2026년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종별복싱대회에서 여고부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전남체고는 지난 16일 충남 청양군민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대회 여고부단체전에서 금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65kg급 황보주와 -51kg급 이예빈이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57kg급 안아오, -60kg급 이정원, -51kg급 최유나도 동메달을 획득하며 팀 우승에 힘을 보탤다.

전남체고는 남자고등부에서 김태서-48kg급 김태서와 -50kg급 정광진의 금메달 활약에 힘입어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

남자중등부에서는 스포츠클럽 소속 유망주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전남 복싱 저변 확대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종별복싱대회에서 메달을 수확하며 전남 복싱을 빛낸 영광의 얼굴들. 왼쪽부터 이정원, 안아오, 최유나, 이예림, 정광진, 김태서, 황보주, 김한빈, 김도원, 박주현. <전남도체육회 제공>

의 성과를 증명했다. 남자중등부 -52kg급에 출전한 보성복싱마스터스포츠클럽 박주현(보성중 3)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연습 행진을 이어가며 결승에 진출했고, 마지막 결승전에서도 2라운드 KO승으로 값진 금메달을 차지했다.

-66kg급 김도원(보성중 3)도 8강에서 지난해 전국대회 입상자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라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밖에 김한빈(전남체육중)도 -57kg급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전남 복싱 중흥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박희중 기자